

“출장 연극·‘시민 참여극’으로 문화 사각지대 최소화”

광주시립극단 원광연 신임 예술감독

지속 가능한 공연 기획·인적 구성
광주브랜드 공연으로 광주정신 확산
문화소외계층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

지난 4년간 ‘장기 공석’이던 광주시립극단(이하 시립극단)의 신임 예술감독으로 최근 원광연 감독이 부임했다.

그동안 시립극단은 예술감독 부재로 장기적인 예술관을 투영한 ‘브랜드 공연’을 선보이는 대신 ‘작품 중심제’로 운영됐다. 이번 신임이 극단 레퍼토리와 작품에 투영되는 예술관의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은다.

원 감독은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이사, 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연극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이다. 극단 아트컴퍼니원을 창단해 6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장애인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다수 선보였다.

최근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그는 “오래 비어있던 예술감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부임 소감을 밝혔다.

원 감독은 시립극단 예술감독 부임 이전, 극단의 공연을 모니터링하며 ‘작품 중심제’의 명암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작품 중심제로 극을 성공적으로 상연한 경우도 많았지만, 장기적인 레퍼토리로 자리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매년 ‘출발선으로 돌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취임을 통해 ‘단거리 경주’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공연 기획 및 인적 구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비쳤다.

극단 아트컴퍼니원을 창단·운영해온 만큼, 앞으로 ‘연출·기획’ 측면에서는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둘지 궁금했다.

원 감독은 “광주의 민주, 평화정신을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광주 브랜드 공연”을 통해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까지 ‘광주



원광연 감독은 ‘출장 연극’, ‘브랜드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 감독이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상연했던 ‘돌아오는 길’ 한 장면. <광주시립극단 제공>

정신’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시립극단의 조례상 정원과 예산인력에 비해 상임, 비상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정된 인력에 맞춰 멀티배역, 객원배우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극단이 선보일 기획 공연으로 그는 ‘출장 연극’ 시리즈를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관객들이 찾아오는 작품 위주였다면 앞으로 매년 소규모 ‘출장 연극’ 시리즈를 통해 시민들 속으로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시립극단은 오는 30일까지 ‘출장 연극’ 시리즈에 출연할 객원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명작 연극선’이나 지역특성을 살린 작품도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극’ 일환으로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명작 소설 ‘오스카와 장미 할머니’를 극화 중에 있다”며 “오는 10월 지자체별로 작품을 한 차례씩 실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감독은 그동안 자신이 창단했던 극단 아트컴퍼니원을 통해 노인문제, 중년실업, 위안부 문제 등 목격한 담론에 주목해왔다. 향후 시립극단에서도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는 “처음 연극계에 입문할 때부터 극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11월 정기공연으로 제1회 광주시립극단 희곡공모 선정작 ‘양림’을 재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버림받은 탕아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오디세이적 작품인 ‘양림’을 매개로 관객들이 현실 속 어려움을 잊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길 바란다는 생각에서다.

향후 장애인들이 관람 제한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공연’ 등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원 감독은 “장애인 연극 교육, 장애인 연극 ‘5년 후의 나’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작품을 18년 넘게 상연해왔다.”

“장애인 극단 창단을 돕거나 장애인 배우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왔기에 다년 간의 데이터가 누적돼 있습니다.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 ‘시민 참여극’ 장애인 및 고령층 관객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동화 같은 그림...따스한 위로, 아련한 추억

임현채 ‘함께 가는 거야’ 전... 28일까지 예술의 공간 집

동화와 같은 그림이 주는 추억과 환상.

그의 그림을 보면 동화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동화와 같은 장면 같기도 하다.

임현채 작가의 삶의 따스한 기억과 추억을 반추하게 하는 전사가 열리고 있다.

예술의 공간 집에서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함께 가는 거야’는 동화 속 어느 장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각각의 그림은 지극히 미소를 짓게 하는 힘이 있다. 풀어진 과거의 시간은 찰진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그저 자연스럽게 응축한 옛 시간에는 “아 그때 그랬지”라는 흔한 말이 깃들여 있다.

많은 그림에는 풍선이 오브제로 등장한다. 풍선은 작가가 상징하는 어떤 세계를 대변하는 상징물 같다.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풍선은 맞춤형 크

기다.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거나 조금 바람이 빠져 있거나, 풍선은 잔잔한 일상의 단면을 담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풍선이 허공에 뜨는 것은 그 안에 채우는 공기가 있어서다.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추억과 기억이라는 가벼운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무게를 빼고, 진지함을 털어낸 자리여야 미소가 스며들 수 있다.

‘꿈 많은 시절’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가의 어린 시절, 즉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게 된다. 허름한 초록색 대문 사이로 쪼뼛쪼뼛 들과 밀들만 남은 그루터기는 얼핏 남루해 보인다. 그러나 초라하지 않고 따스하다. 그루터기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소년과 소녀는 빨리 어른이 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픈 어린이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대문 위에 바람이 빠진 채 걸터 있는 파랑고 노란 풍선은 얼핏 가리워진 현실의 무게로 다가온다.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내가 살아가는 일상



‘꿈 많은 시절’

의 이야기를 그렸지만 확대해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며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이 저마다의 마음 속에 간직해 둔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당신의 조각을 그려 보아요’ (상시 진행)와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인 ‘도란도란 그림 이야기’ (20일 오후 2시, 25일 오후 7시)가 그것.

한편 임 작가는 전북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교



‘대문’

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조선대에서 서양화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광주신세계미술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10회 개인전과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 위한 세미나’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우리나라는 전후 가장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다.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근대라는 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근대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중적 가치를 지닌다. 극복해야 할 가치이자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상존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대미술관이 없다. 근대기 미술을 연구하고 소장하며 전시, 교육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근대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맞물린다.

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국립20C(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국립 20C 미술관(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조은정(고려대, 미술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기초발제와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펼쳐진다.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이 ‘국립근대미술관 존재 이유-한국미술의 총체적 인식의 장’을 주제로, 태태하다 아키라 쿠사마야오이 미술관이 ‘한국의 근대미술사 완성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각각 기초발제를 한다.

뒤이어 전문가 3명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김복기(경기대)의 ‘한국 근대, 미완의 프로젝트’, 김한결(전남대)의 ‘컬렉션에서 박물관으로, 미술사학의 의지: 유럽 근대미술관의 사례’,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국립 20세기미술관 또는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위한 실천적 제안’ 등이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은 흥경한(미술비평)을 좌장으로 김경경(전남대), 도재기(경향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무용부터 어린이극까지...전남문화재단, 9월까지 기획공연

남도소리유평터에서 다양한 공연 즐겨볼까.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무용, 어린이극 등 총 4편의 기획공연을 오는 9월까지 남도소리유평터 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먼저 오는 24일(오후 7시) 전통공연 ‘보배로운 잔치’로 막을 올린다. 진주검무보존회, 진도씻김굿보존회가 출연해 궁중무용 중 최고(最古)의 춤인 ‘진주검무’와 산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진도씻김굿’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전석 무료)

이어지는 예술단체 타투의 어린이 소리극 ‘벨벳 토끼’는 8월 3일 두 차례(오전 11시, 오후 2시)에

결쳐 상연할 예정이다.

영미권의 고전 ‘The Velveteen Rabbit, How toys become real?’에 한국의 전통예술을 입혀 최초로 공연화한 작품이다.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일반석 1만원(전남도민 5000원), 남도소리유평터 누리집 예매.

끝으로 9월 11일(오후 7시)에 펼쳐지는 창작극 ‘소속대로_음유시인’도 볼거리다. 한국의 전통악기와 시를 접목한 ‘정가’를 비롯해 서양의 클래식 악기와 가곡을 결집한 ‘미디어아트 기반 성악 레퍼토리’ 등이 울려 퍼진다. (3세 이상 관람가, 전



9월 11일 선보일 예정인 ‘소속대로_음유시인’ 공연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석 무료).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뮤지컬, 창작극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남도소리유평터가 지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인식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